

제15편 - 제3신앙촌시대(제2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59회)

제15편  
제3신앙촌 시대(제2부)  
一. 인류의 구세주 예수?  
二.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마귀다  
1)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2) 돌연 다 결혼을 하라고 명함  
3) 승리제단(勝利祭壇)이라는 명칭을 발표함  
4)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대(大)마귀새끼다

제3신앙촌시대(제2부)

二.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마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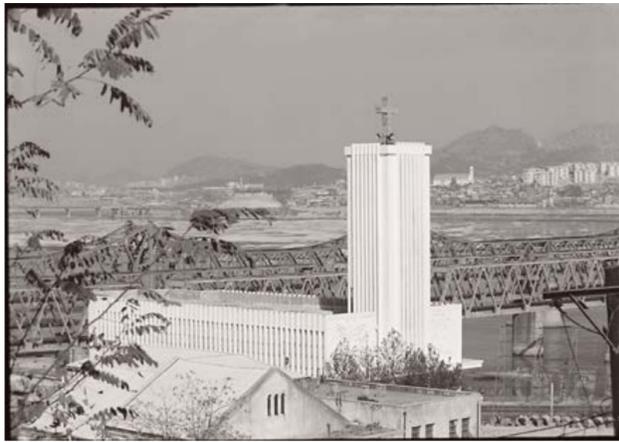
2) 돌연 결혼을 하라고 명함

“제품 창고 최모를 알지? 내가 최모와 중매를 설 터이니 그렇게 해!”라고 하신다. 그 순간 영모님이 마음을 떠보시는 것이 아닌 참 말씀을 하신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다. 영모님이 말씀하시는 제품창고의 최모 처녀는 영모님이 아내로 맞이하기로 선택한 경리부의 최모 여인의 친동생이 된다. 그리고 제품창고 책임자 최모 처녀는 융통성이 없고 외골수로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전국의 관장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다. 영모님은 다시 한번 다그치신다. “순종해! 내가 중요한 일을 맡길려고 해!”라고 하신다. 그래서 필자는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 영모님은 “무슨 시간, 너 내말을 순종 안 할 거야?”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신다. 필자는 놀라서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곧 기장신앙촌으로 불러 올릴 터이니 마음 준비하고 기다려!”라고 하신다. 필자는 “네!”하고 대답을 하고 물러나왔다. 영모님실에서 내려오니 기다리던 여러 사람들이 굵금하다는 듯이 무슨 일이나고 하

면서 물어대기 시작한다.

그러나 필자는 “영모님이 부르실 때는 꾸중밖에 더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그냥 제단으로 돌아왔다. 제단으로 돌아온 필자는 마음이 심란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던 지 몇 개월 후 1973년 11월경 영모님은 필자를 기장신앙촌으로 발령을 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녀총각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 영모님의 신임과 사랑을 받던 사람들은 영모님이 직접 짝을 지어 주셨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제일 큰 축복으로 여겼다. 전국적으로 결혼붐이 일어났다. 가두어 놓았던 붓물이 일시에 터지듯이 견잡을 수 없는 결혼 홍수가 일어났다. 영모님은 기장신앙촌에 호화스러운 결혼예식장을 만들었고 고정 주례로 오성민 관장을 임명하셨다. 다들 결혼은 절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오직 재림의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천년성의 왕이 되는 것만 염두에 두고 달렸던 무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영모님의 말씀 한 마디에 지금 까지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짐하며 지켜가던 독신사약을 그냥 무너트리려고 결혼의 홍수를 이루었던 것이다.

영모님은 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일까?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은 분명 결혼은 도를 닦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관에서 신앙에 정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며 자랑스러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영모님은 이와 같은 원리를 접어버리고 세속적인 종교인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



노량진에 위치한 8층양전도관 전경

으로 환원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문투성이다. 영모님은 타락하셨는가? 눈길로나 마음로나 범죄치 말라고 단에 서실 때마다 강조하시던 말씀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모든 죄 중에서 남녀간의 음란죄가 제일 큰 죄가 되니 마음속으로도 이성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던 영모님의 말씀은 어찌 되는 것일까?

3) 승리제단(勝利祭壇)이라는 명칭(名稱)을 발표함

영모님이 기성교회 교권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이단이라고 축출된 후 전도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교인들을 이끌어 온 것은 이미 잘 아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1978년에 영모님은 승리제단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제단 명칭을 발표하시는 것이다. 다들 그 생소한 제단 명칭을 듣고 머리를 가우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영모님이 승리자시니까 승리제단으로 명칭을 바꾸

어 발표하시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영모님이 승리자라는 것이 지금에 알려진 것이 아니고 1956년도부터 승리자라고 알고 다들 그렇게 호칭하여 온 터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승리제단이라고 제단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제단 명칭을 전도관에서 승리제단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영모님은 1978년도에 승리제단이라는 제단 명칭을 새로 발표하신 후에 이 승리제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즉 승리제단은 100만명이 들어가는 원형(圓形)으로 된 제단인데 제단 내부는 제단 중앙에 단상이 있는데 그 단상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단이다. 그래서 단에 서신 분이 빙둘러 앉은 교인들을 돌아가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외부에는 큰 방송용 발출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 제단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전세계로 방송 송출이 된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가 다 돌아오게 된다고 하시던

서 이제 때가 다 되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영모님은 “승리제단 부지(敷地)는 너희들이 사라. 승리제단은 몇 백억이 들어도 내가(영모님) 건축을 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全) 전도관교인들은 승리제단 부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하여 승리제단 부지로 지금 서울 서초동 국립도서관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였다. 그후부터 승리제단을 곧 건축할 것처럼 조감도(鳥瞰圖)까지 크게 그려서 기장신앙촌 중심부에 세워 놓고 과시를 하였으나 시간만 끄시면서 승리제단을 건축하실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승리제단을 크게 건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었으나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전도관 기관은 왜 바꾸지 않는 것인지가 매우 궁금한 일이었다. 그러나 영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할 처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4) 예수는 가짜 구세주요 대 마귀 새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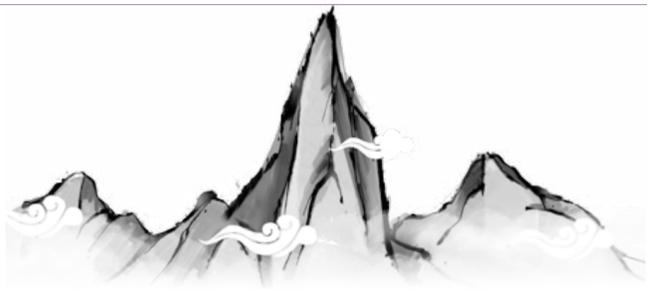
1978년 승리제단 명칭을 발표하신 후부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가 감지되는 듯 하였으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영모님은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즉 “지금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예수님 사진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다. 주의 종이(영모님을 말함) 바라본 주님의 모습을 이제 유명한 화가를 시켜서 그리게 하여 그 원본을 일본에 보내서 사진으로 만들어 오라고 해놓았다. 그 사진에는 주의 종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이 있다고 쓰겠다”라고 말씀

을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주의 종이 바라본 주님의 진짜 형상이 사진으로 나오면 우리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가 그 사진을 구하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주님의 사진은 “주의 종이 기도 중에 바라본 주님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 영모님의 말씀을 들은 전도관 식구들은 다 한결같이 그 사진이 빨리 일본에서 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9년이 되면서 서서히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영모님께서 다음 축복일에는 중대한 말씀을 발표한다고 전국에 공문을 띄우라고 하여 전국에 공문을 협회에서 띄웠고, 그리고 그 예정된 축복일에는 엄청난 교인들이 기장신앙촌에 몰려들었다. 잔뜩 긴장하면서 기대를 갖고 기장신앙촌에 모인 신도들은 실망만 하고 돌아갈 가이만 했다. 왜냐하면 그날 영모님은 중대한 말씀은 꺼내지도 않으신 채 평범한 말씀만 하시고 끝을 냈던 것이다. 이러기를 몇번의 축복일이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렇게 한 후의 다음 축복일에 영모님은 느닷없이 성경 66권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창세기서부터 차례로 한 명씩 드러내어 그의 약점을 설명하면서 처버리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한명도 남김없이 처버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등도 다 때려버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맨마지막으로 처버렸다. 다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었다. 영모님은 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처버리시고 어찌할려고 하시는 것일까?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46회

네 뿔(四角)의 기세가 기울어져 조선을 비워 두면 그제야 십자(十字) 즉 십승지인(十勝之人)이 출현하리



弓乙論(一) 궁을론

弓乙不和向東西 궁궁불화향동서  
背弓之間出於十勝 배궁지간출어십승  
人覺從之所願成就 인각종지소원성취

궁(弓)자 두 개가 동서(東西)로 면으로 향하고 있는 형상이란 보불불(弓)자요 이렇게 궁(弓)자 두 개가 등을 돌리고 있는 보불불(弓)자 속에 백십(十)자가 표출되는데, 이 백십(十)자는 이기신 하나님(十勝)을 뜻하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십승지인(十勝之人) 정도령(正道令)을 따르지만 하면 소원성취할 수 있네.

\* 궁(弓)자의 뜻; 마상록(馬上錄)에 “궁위인시조위(弓爲人始祖矣)”라고 하였듯이 궁(弓)자는 우리 인류의 시조(始祖)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弓弓相和向對坐 궁궁상화향면대좌  
灣弓之間出於神工 만궁지간출어신공  
人人讀讀無文道通 인인독독무문도통

궁궁(弓弓)이 서로 화합하여 마주 대하고 앉아 구부린 궁(弓)자의 모습은 신공(神工)을 뜻하네. 인인(人人)은 아닐 불(不)자이니, 세상의 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자 없이 배우는 영적 공부 즉 신공(神工=신공의 공부)고

夫)을 하면 도통하리라.

右乙雙爭一勝一敗 우을쌍쟁일승일패  
縱橫之間出於十字 종횡지간출어십자

우을(右乙=하나님)과 서로 싸운 마귀는 태초에 먼저 승리한 다음에 6천년이라는 기한이 차서 패할 때까지 흑십자(黑十字)를 앞세워 종횡무진하게 되리라.

\* ① 右乙雙爭一勝一敗(우을쌍쟁일승일패); 도부신인(桃符神人) 편에 “천지상쟁혼돈시(天地相爭混沌時)에 천신부(天神負)이 지귀승(地鬼勝)을...” 즉 천지가 서로 싸우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겼다는 구절을 비추어 볼 때, 右乙(우을)은 마귀한테 진 하나님을 뜻한다.

② 十字(십자); 陰鬼(음귀)는 黑十字(흑십자)요 陽神(양신)은 白十勝(백십승)을 陰陽分解(음양분해) 모르고서 十勝仙道(십승선도) 찾을소냐 - 도부신인(桃符神人)편 참조

人覺得智永保妻子 인각득지영보처자  
左乙相交一立一臥 臥乙之間出於十勝 좌을상교일립일쌍을지간출어십승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지혜를 얻으면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좌을(左乙=마귀)이 처음 승리한 일립(一立=乙)과 마지막에 패한 일와(一臥=乙)를 서로 교차하면 만(卍)자가 나오나니, 이는 6천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 왔던 흑십자를 종식시키고 만(卍)자의 이치로 오시는 보혜대사(寶惠大師) 정도령이자 십승지인(十勝之人) 생미륵불의 출현을 뜻함이다.

性理之覺無願不通 성리지각무원불통

성리(性理) 즉 사람의 근본과 자연의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소원을 이룰 수 없네.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계획하시고 숨겨오신 인류구원의 섭리가 무엇인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네.

四口合體入禮之田 사구합체입례지전  
四口之間出於十字 사구지간출어십자  
骸垢洗淨沐浴湯田 해구세정목욕탕전

4구합체(四口合體)는 발 전(田)자로서 극기복례(克己復禮=입례入禮)로다. 전(田)자 속에 4개의 입 구(口) 사이에 열 십(十)자는 십승지인(十勝之人)을 뜻하네. 이 분은 우리 인류의 골수(骨髓)에까지 더럽혀진 죄악의 때를 씻어 맑히는 목욕탕과 같은 분이로다.

五口達交達成之田 오구달교달성지전

五口之間出於十勝 오구지간출어십승  
脫劫重生變化之田 탈겁중생변화지전

큰 입 구(口) 하나 속에 작은 입 구(口) 네 개가 서로 교통하여 이루어진 글자가 발 전(田)인데, 이렇게 다섯 개의 입 구(口); 네모는 땅을 상징함)란 지상에 5숫자(5; 구세주를 상징하는 수)의 이치로 오신 십승지인(十勝之人) 정도령을 뜻하네. 이렇게 5숫자의 이치가 담겨 있는 발 전(田)자로 인하여 인생들은 탈겁중생(脫劫重生)하여 영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네.

\* 脫劫重生(탈겁중생); 死之征服永生者(사지정복영생자)는 脫劫重生修道者(탈겁중생수도자)라 - 말중운 참조

精脫其右未盤之圖 정탈기우미반지도  
落盤高四乳出於十字 락판고사유출어십자  
先師此云覺者得福 선사차운각자득복

정(精)자의 오른쪽을 벗어버리면 미(米)자 형상의 밥상(盤) 그림이 나오네. 미(米)자 형상의 밥상(盤) 그림에서 기고만장한 네 젓꼭지(勺)가 떨어져나면 십자(十字)만 남는구나! 옛 스승(先師: 神人)께서 이리시기를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었네.

一鮮成胎四方連交 일선성태사방연교  
四角虛虧出於十字 사각허후출어십자

奧妙遠理世人難知 오묘원리세인난지

조선 한반도에 한 줄의 38선이 성태(成胎)함으로써 네 뿔(四方=乙)이 달라붙어 이권을 쟁기려고 교전하도다. 그러나 네 뿔(四方=乙)의 기세가 기울어져 조선을 비워 두면 그제야 십자(十字) 즉 십승지인(十勝之人)이 출현하리. 이러한 오묘하고 심원한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는 어렵나니.

\* ① 一鮮成胎(일선성태); 一鮮成胎

四角虛虧(일선성태 사각허후)에 三八運氣 真人(삼팔운기 진인)으로 辰巳午生三運 (진사오생 삼운)바더 三聖一人 神明化(삼성일인 신명화)의 四夷屈服 萬邦和(사이굴복 만방화)요 - 승운론 참조

② 四方(사방); 이 일 후에 내가 네 철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되라 - 계시록 7:1 참조\*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